

# 사서와 타학문분야 연구팀의 공동 연구 및 출판에 관한 연구

## Collaborative Research and Publishing of Librarians and Research Teams from Other Academic Fields

신 은 자 (Eun-Ja Shin)\*

### 목 차

- |           |             |
|-----------|-------------|
| 1. 서론     | 3. 데이터 분석결과 |
| 2. 이론적 배경 | 4. 결론       |

### 초 록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서가 연구프로젝트 팀원으로 참여하여 해당 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예가 많다. 최근에는 문헌정보학 학술지와 타학문분야 학술지에 출판한 사서의 논문수가 서로 비슷할 정도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도 타학문분야 연구팀이 사서에게 구체적 협력을 요청하고, 연구를 함께 진행하며, 연구성과물인 학술지 논문을 공동 저자로 출판하는 지 등을 분석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출판된 도서관 소속 저자의 319편 논문 데이터를 Korea Citation Index로부터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타학문분야 학술지에 출판한 사서의 논문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건축학, 재료공학 등의 분야에서 사서가 타학문분야 연구팀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출판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프로젝트에 도서관 사서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국내도 곧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도서관은 물론 사서직을 양성하는 국내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도 연구프로젝트 지원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ABSTRACT

In the many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numerous librarians participate as research project members and publish papers in related/non-LIS journals. In recent years, the quantity of papers published by librarians in LIS journals and the non-LIS journals is similar. This study analyzed whether librarians join the research team in various academic fields in South Korea, carry out the research together, and publish the papers in co-authorship.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319 articles of the authors affiliated with libraries published in the last 10 years from the Korea Citation Index. As a result, there were not many articles published by the authors in the non-LIS journal. Nonetheless, specific examples of librarians collaborating closely with other disciplinary research teams were observed: Medicine, Architecture, Materials Engineering, etc. Librarians' contribution in research projects in South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repare for this such as opening courses on research projects in the library and the department of LIS which is training librarians as well.

키워드: 사서, 학술지 출판, 공동 연구, 공저, 연구프로젝트, 파견사서, KCI

Librarian, Journal Publishing, Collaborative Research, Co-authorship, Research Project, Embedded Librarian, KCI

\*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ejshin@sejong.ac.kr / ISNI 0000 0004 6506 9498)  
논문접수일자: 2019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8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8월 14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143-159,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3.143>)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가 실무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연구논문으로 작성해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서의 연구 및 출판이 문헌정보학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의학, 컴퓨터공학, 교육학 등 타 학문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프로젝트에 사서가 팀원으로 참여하고, 해당 분야 학술지 출판에 직접 관여하고 기여하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 같은 현상은 선진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해외에서는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전문 사서를 팀에 합류시켜 직접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효과적이라는 공감대가 학계에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내는 사서가 연구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활발하게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국제화 시대를 맞아 대학간 연구경쟁이 국가를 넘어 이미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심하는 것은 국내도 해외와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프로젝트에 사서를 참여시키는 현상은 국내에서도 머지않아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구프로젝트 수주가 활발한 학문분야에서 먼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는 국내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사서에게 구체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연구를 함께 진행하며, 사서를 공동 연구자로 인정

하고 함께 출판하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도서관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에 연구의 관심을 두었다.

연구프로젝트 정보를 통해 사서의 연구참여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면 국가과학기술정보 포털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를 접속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내 연구프로젝트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고, NTIS는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9). 그렇지만 NTIS는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비 지원 주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 이를 잘 커버해 주지 못한다. 대학 자체 연구프로젝트나 연구비 지원 없이 수행된 연구에 관한 정보는 이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연구는 일상적 연구 가운데 사서의 연구 참여를 분석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NTIS에 수록된 연구프로젝트 대신 주기적으로 출판되는 국내 학술지를 통해 사서의 연구 참여를 파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현재 Web of Science, Scopus,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 학술지 색인DB는 모두 저자의 성명 또는 소속기관을 입력해 찾을 수 있을 뿐, 저자의 신분, 직위, 직급 등 세부 정보로는 접근이 어렵다. 이에 Borrego, Ardanuy, Urbano(2018)는 “사서” 대신 소속기관에 “도서관”으로 검색하여 학술지 출판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도 이들의 검색을 참조하여 저자의 소속이 “도서관” 또는 “library”로 표기된 논문을 Korea Citation Index에서 찾아 분석하였고, 이 가운데 사서의 논문을 선별해 추가로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연구는 사서가 타학문분야 국내 학술지에 출판한 사례를 찾아 분석함으로써 현재 사서가 타학문분야 연구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서관 서비스의 외연을 확장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아울러 사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 1.2 연구의 방법

국내 학술지 출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있어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을 이용하였다(한국연구재단 2019a). KCI 서비스는 2007년에 시작된 이후 2019년 현재 등재(후보 포함) 학술지 2,439종의 색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70%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이다. 이 연구는 KCI를 통해 학술지 논문의 저자, 소속기관, 주제 분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KCI 검색메뉴 중 하나인 소속기관에 “도서관” 또는 “library”를 입력하고, 아울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출판된 것만 검색되도록 출판연도를 제한하였다. 그 결과 문헌정보학 183편, 타학문분야 136편 등 모두 319편의 논문을 검색할 수 있었다. 실제 저자의 소속기관은 이들 논문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나, 도서관내에서 이들이 어떤 신분/직군인지까지 밝힌 경우는 많지 않았고, KCI DB에도 이러한 사항은 잘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구글 검색엔진에 저자명, 소속기관 등을 입력한 후 수 차례 추가 검색을 통해

이들의 신분/직군을 파악해 데이터를 보완하였다.

한편, KCI는 한국연구재단이 작성한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 의거한 주제분야명을 각 논문마다 수록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 2019b). 학술연구분야분류표는 1999년 처음 작성된 이후 소폭의 개정을 거쳐 현재와 같은 대분류(8개), 중분류(152), 소분류(1,551개), 세분류(2,468개) 항목을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각 논문에 부여된 세분류 주제분야명을 KCI로부터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저자의 신분/직군과 단독/공저에 따른 논문 분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연구는 Borrego, Ardanuy, Urbano(2018)의 기준을 참조하였다. <표 1>과 같이 이들은 기관 안팎의 협력이 전혀 없는 경우부터 사서와 교수의 공저(정보리터러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섯 유형으로 논문을 분류하였다. 유형(B)에서 “systematic review”는 특정 토픽에 관한 적합 문헌 전체를 찾아내고, 이를 분석·비평하고, 종합·합성하는 과학적인 리뷰를 의미하고, 이는 새로운 연구를 시행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빠를 수 있으며, 이미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사서와의 협업을 통해 이를 실시하는 예가 많다. 이 연구는 이들이 제안한 다섯 유형 가운데 유형(F)는 배제하였다. 유형(F)가 문헌정보학의 일부인 “정보리터러시”에 관한 것이어서 유형(D)에 포함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서/도서관장+교수, 문헌정보학 제외(E)”를 추가하여 사서/도서관장과 교수가 문헌정보학이 아닌 분야에 출판했을 경우를 집계할 수 있게 하였다.

〈표 1〉 저자의 직군에 따른 논문 유형 분류 기준

유형	Borrego, Ardanuy and Urbano(2018)	본 연구(2019)
A	librarians with no institutional collaboration	사서/도서관장, 단독/공저*
B	systematic reviews co-authored by researchers and librarians	사서/도서관장+연구원, systematic review
C	co-authored by researchers and librarians in the scholars' fields of expertise	사서/도서관장+연구원, (systematic review 제외)
D	co-authored by faculty and librarians on LIS-related topics	사서/도서관장+교수, 문헌정보학 관련
E		사서/도서관장+교수, 문헌정보학 제외
F	co-authored by faculty and librarians on information literacy	

\* 공저는 사서가 1명이라도 저자명단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함.

## 2. 이론적 배경

국내에서는 도서관 사서의 학술지 출판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적은 편이나(서은경 외 2015; 정재영, 박진희 2011), 해외에서는 사서의 학술지 출판이 활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발표된 연구가 많다. 그 중에서도 교수 또는 다른 연구자와의 공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공저의 비중은 같은 문헌정보학 분야라 하더라도 어떤 학술지를 분석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작지 않다.

실제 Soutter(2007)가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출판한 대학 소속 저자(university-based authors)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저 논문의 비중은 46.5%인데 비해, Norelli and Harper(2013)의 연구에서 그 비중은 52%였다. 심지어 동일 학술지라 하더라도 분석기간에 따라 차이가 분명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Kenefick and Werner(2011)는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라는 학술지 1종을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저 논문의 비중이 80년대 38%, 90년대 50%, 2000년대 59% 등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해가 갈수록 공저의 비중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저 논문의 비중을 측정했을 때 60%는 쉽게 넘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Wood와 Park(2013)은 대학도서관 사서의 문헌정보학 학술지 공저가 53%로 단독 연구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도서관 유형별로 사서 저자의 비중이 어떠한지를 측정한 연구도 있다. 여기서도 분석대상 학술지와 출판연도에 따라 연구결과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도서관 사서가 전체 저자의 35%라는 연구결과도 있었고(Wood and Park 2013), 반면에 좁은 영역 실무 학술지인 경우 사서 비중이 전체 저자의 약 7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었다(Kenefick and Werner 2011).

아울러 사서의 문헌정보학 학술지 출판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Best와 Kneip(2010)는 2종의 문헌정보학 학술지 분석을 통해 1998년~2002년이 1993년~1997년에 비해 사서 저자의 논문이 8% 감소했음을 확인하였다. Finlay 외(2013)도 20종의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2007년~

2011년이 2002년~2006년에 비해 사서 논문의 수가 7% 감소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2007년~2011년 전체 논문의 수가 13%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의 논문수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의외라고 덧붙였다. Bleicic 외 (2017)도 40여종의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관측했을 때 사서 저자의 수는 오히려 감소세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에 의하면 사서 논문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2007년 39.64%였으나, 2008년~2012년 34.60%로 나타나 약 5% 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에 관하여 Borrego, Ardanuy, Urbano(2018)는 관심과 동시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해가 갈수록 연구 경쟁이 치열해지고, 동일 분야 또는 학제간 공동 연구는 증가하며, 더불어 연구논문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 추세인데, 사서의 문헌정보학 학술지 출판이 오히려 감소세라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도서관 특히 미국 대학도서관 사서는 교수 신분인 경우가 많아, 기본적으로 연구에 관심이 많고 학술지 출판도 활발한 편이다. 더구나 승진 및 정년보장 평가에 이들 연구업적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서의 문헌정보학 학술지 출판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서의 문헌정보학 학술지 출판 감소가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은 의견이었다. 예를 들어 감소한 만큼의 대체 출판, 즉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Borrego, Ardanuy, Urbano (2018)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도서관 소속 저자가 문헌정보학 뿐 아니라 타학문분야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실제 이들은 Scopus DB를 분석을 통해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출판한 사서 논문의 수는 해가 갈수록 감소한 반면, 타학문분야 학술지에의 출판은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문헌정보학 외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이 약 두 배 증가하였고, 심지어 2015년에는 문헌정보학 학술지(190종)와 타학문분야 학술지(4,093종)에 출판된 각각의 논문수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회과학, 의학, 공학, 인문예술, 자연과학 학술지에 사서의 출판이 활발하였고, 세부분야로 디지털 휴머니티, 교육학, 정보검색, 커뮤니케이션 분야 출판이 빈번하였다. 이들은 사서와 사서, 사서와 교수간 공저도 자주 목격이 되고, 대학도서관 사서가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거나, 타연구자와 공저자로 함께 출판하는 일도 자주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제 미국 미시건대 사례에서는 연구프로젝트에 파견된 도서관 사서가 연구보조자가 아닌 공동연구자로 확실하게 인정받고 있음도 확인되었다(Brandenburg et al. 2017). 이 대학 Mcubed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서는 도서관 현장 경험을 십분 살려 연구비 담당자, 인용분석법 교육자, 학생 보조자의 멘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찾고, 묶고, 요약하는 등 체계적인 선행연구 리뷰(systematic literature review)에 깊이 관여하였다. 보건학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일반 연구자와 달리 사서는 편견 없이 PubMed에서 자료를 찾아 체계적 리뷰를 수행하는 동시에, 중복 자료를 걸러내고, 빠짐없이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등 명실공히 정보전문가 (informationist)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파견사서(embedded librarian)의 노력 덕택으로 연구프로젝트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고, 연구의 완성도도 더불어 높아졌다는 평가였다는 것이다.

파견사서라는 용어는 과거 1970년대에도 쓰인 바 있다. 당시에는 수업 커리큘럼에 따라 교수와 공동으로 강의하는 사서를 지칭하는데 쓰였고, 더불어 전통적으로 대학도서관에서 수행해왔던 리에종 업무(liaison work)가 요즈음 시대에 맞게 변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Bedi and Walde 2017). 어찌되었든 최근에는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문헌의 탐색/리뷰/참고문헌 작성을 하는 사서를 칭할 때 자주 쓰이고 있다(Bedi and Walde 2017). Carlson과 Kneale (2011)은 사서가 최종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단순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프로젝트 초기부터 문헌의 포괄적 탐색 및 리뷰를 수행하는 광범위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학도서관 사서라면 다양한 교수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동연구자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데이터 및 자료의 홍수로 인하여 적절한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이 쉽지 않은 요즈음, 사서를 연구프로젝트 및 출판에 참여시켜 이를 담당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즉, 이는 사서의 업무를 도서관내 서비스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분주히 움직이는 일선 연구현장과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대학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부연하면 대학도서관의 경우 전통적인 도서관 업

무 뿐만 아니라 대학 안팎의 다양한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학문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전문직적 위상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과 학계의 요구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도서관 소속 저자의 학술지 출판은 어떠한가? 구체적으로 도서관 소속 저자는 어떤 분야 학술지에 주로 출판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도서관 소속 저자라 해도 반드시 문헌정보학 학술지에만 출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특히 사서가 아닌 도서관 소속 저자는 타학문 분야 학술지에 출판할 가능성도 매우 많다. 이 연구는 도서관 소속 저자가 수행한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 논문수, 단독과 공동 연구자 직군 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출판 활동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사서/도서관장의 문헌정보학 학술지 출판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둘째, 국내 도서관 사서는 문헌정보학 뿐 아니라 타학문분야 학술지에도 출판할까? 이는 국내 도서관 사서가 타학문분야 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해당 분야 논문 출판에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타학문분야 연구에 참여하는 사서는 어떤 타입의 협업을 주로 하는지, 나아가 이들은 주저자와 공저자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봄으로써 국내 사서의 연구와 출판 활동 정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타학문분야 연구에 참여한 파견사서의 소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구프로젝트 현장에 사서를 투입하여 연구프로젝트의 수행을 돕고, 사서의 전문성을 발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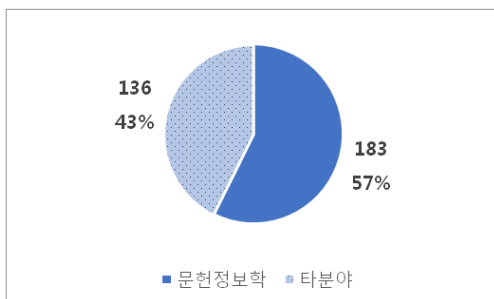
하게 하며, 동시에 학술공동체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도서관은 정규 도서관 업무에 급급한 상황이어서, 당장 이들을 연구 현장에 파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타학문분야 또는 다학제적 연구에 투입된 파견사서가 담당하는 업무와 역할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국내 상황에 적용하고 추진해 볼만한 것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3. 데이터 분석결과

#### 3.1 도서관 소속 저자의 학술지 출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국내 도서관 소속 저자가 출판한 논문은 모두 319편으로 연평균 31.9편이었다. <그림 1>과 같이 문헌정보학 학술지 출판 논문수는 183편으로 전체의 57%였고, 타학문분야는 136편으로 전체의 43%여서,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이 적지 않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표 2>는 도서관 소속 저자가 출판한 학술지



<그림 1> 도서관 소속 저자의 학술지 분야 분포

의 주제별 분포이다. 전체 논문 319편 가운데 인문사회 분야는 89편 27.90%, 과학기술 분야는 20편 6.27%, 복합 분야인 문헌정보학 및 기록관리학은 183편 57.37%였다. 문헌정보학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학술지를 출판한 세부분야는 법학으로 전체의 11.29%였고, 뒤이어 역사가 전체의 4.70%였다.

<표 3>은 타학문분야 학술지를 출판한 도서관 소속 저자의 신분/직군을 집계한 것이다. 주저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분/직군은 법률 관련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는 자료조사관, 법률조사관, 전문경력관으로 전체의 27.21%였다. 다음 역사 사료의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는 학예연구사, 사료관, 고서전문원이 전체의 23.53%를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법학, 역사의 전공 배경을 가진 주저자가 모두 50.74%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였다. 뒤이어 교수는 전체의 1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저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분/직군은 교수로 전체의 27.42%였고, 뒤이어 연구원이 전체의 26.61%의 비중이었다.

<그림 2>는 사서/도서관장이 출판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논문을 연도별로 집계한 것으로 연간 출판 추이를 보여준다. 연간 분포는 적게는 7편(2010년), 8편(2012년)이었고, 많게는 24편(2009년, 2016년, 2017년)이었다. 적게 출판된 2년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연간 20편 안팎의 고른 분포를 보인다 할 수 있다. <그림 3>은 사서/도서관장의 저자 역할 분포이다. 사서/도서관장이 주저자인 논문은 110편으로 전체의 60%이고, 나머지 73편(40%)은 공저였다. 전체 183편의 논문 가운데 사서의 단독 논문은 35편이었고, 공저 논문 중 사서가 첫번째 저자인

〈표 2〉 도서관 소속 저자의 출판 학술지 주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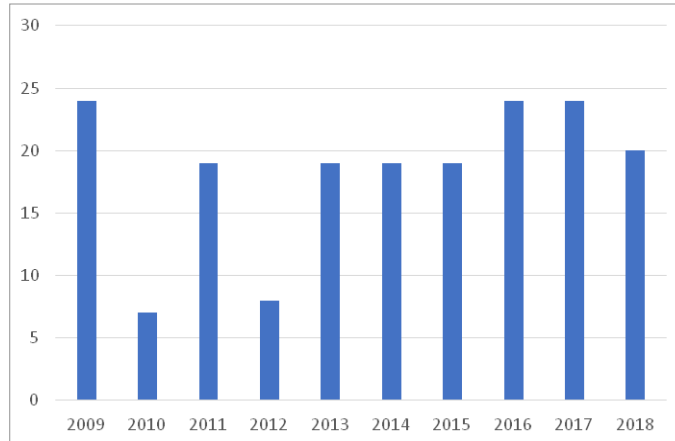
구분		중분류	세분류	논문수	%
인문사회분야	인문	일반		7	2.19
		아동문학		3	0.94
		역사		15	4.70
	사회	일반		5	1.57
		법학		36	11.29
		교육		3	0.94
		정책		7	2.19
		지리		10	3.13
	예술체육*			3	0.94
	소계			89	27.90
과학기술분야	자연	일반		9	2.82
	공학	일반		1	0.31
		컴퓨터학		3	0.94
	의약학			7	2.19
	농수해				
	소계			20	6.27
복합분야	복합학	일반			
		문헌정보	일반	180	56.43
			기록관리학	3	0.94
	소계			183	57.37
기타				27	8.46
계				319	100.00

\* 한국연구재단은 예술체육을 인문사회분야에 포함하였음.

〈표 3〉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 저자의 직군 분포

직군	주저자		공저자	
	인원	%	인원	%
자료조사관/법률조사관/전문경력관	37	27.21	10	8.06
학예연구사/사료관/고서전문원	32	23.53	5	4.03
교수	20	14.71	34	27.42
연구원	7	5.15	33	26.61
사서	7	5.15	11	8.87
도서관장	5	3.68	3	2.42
사무관	3	2.21	0	0.00
기타	18	13.24	27	21.77
소계	136	100.00	124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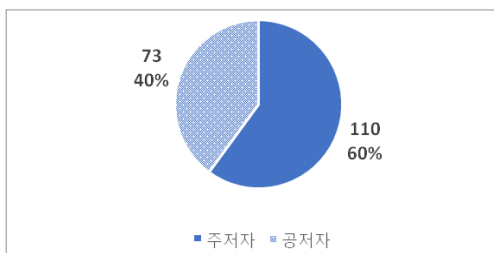




〈그림 2〉 사서/도서관장의 문헌정보학 학술지 출판(2009~2018)

논문은 73편이었으며, 사서가 일반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70편이었다. 반면에 주저자와 공저를 불문하고 도서관장이 저자인 논문은 전체 논문 183편 가운데 모두 5편이었다. 도서관장의 단독 논문은 없었고, 공저 논문 중 도서관장이 첫번째 저자인 논문은 4편이었으며, 도서관장이 일반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1편이었다.

(〈표 3〉 참조). 〈그림 4〉와 같이 주저자로 출판한 논문은 사서 7편(전체의 5.15%)이었고, 도서관장은 5편(전체의 3.68%)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사서/도서관장의 주저자 논문은 12편, 전체 주저자 논문의 8.83%의 비중이었다. 공저 논문은 사서 11편(전체의 8.87%)이었고, 도서관장은 3편(전체의 2.42%)의 비중이었다. 즉, 사서/도서관장이 공저한 논문은 14편, 전체 공저자 논문의 11.29%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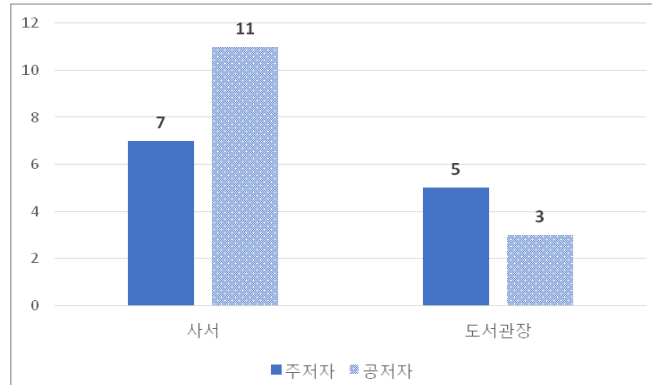


〈그림 3〉 사서/도서관장 문헌정보학 학술지 주저자/공저자 분포

### 3.2 도서관 사서의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

사서/도서관장이 문헌정보학이 아닌 타학문분야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수는 많지 않았다

〈표 4〉는 사서/도서관장이 출판한 26편 논문의 주제별 분포이다. 이들 논문은 사회과학 30.77%, 인문학 23.0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의학과 자연과학이 각각 15.38% 등의 분포였다. 〈표 5〉는 저자의 직군과 공저에 따라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을 집계한 결과이다. 사서/도서관장이 다른 직군과 협업하지 않고 출판한 논문(A)은 모두 13편으로 전체의 50%에 해당하였다. 특히 사서/도서관장의 논문은 단독 12편, 공저 1편으로 단독 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반면에 문헌정보학 학술지 출판에서 사서/도서관장의 단독/공저는 25.68%로 타학문분야 학술



〈그림 4〉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에서 사서/도서관장의 저자 역할 분포

〈표 4〉 사서/도서관장의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 주제별 분포

대구분	중분류	논문수	소계	%
사회과학	일반	1	8	30.77
	경영학	1		
	교육학	3		
	정책학	1		
	법학	1		
	정치외교	1		
인문학	일반	3	6	23.08
	아동문학	2		
	언어학	1		
의학	건강/재활심리	1	4	15.38
	비뇨기과학	1		
	의약학	1		
	이비인후과학	1		
자연과학	일반	4	4	15.38
공학	재료공학	1	2	7.69
	정보디자인	1		
기타		2	2	7.69
합계		26	26	100.00

〈표 5〉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에서 사서/도서관장의 저자 구성

유형	구분	문헌정보학		타학문	
		논문수	%	논문수	%
A	사서/도서관장, 단독/공저	47	25.68	13	50.00
B	사서/도서관장+연구원, systematic review			1	3.85
C	사서/도서관장+연구원, systematic review 제외	7	3.83	2	7.69
D	사서/도서관장+교수, 문헌정보학 관련	129	70.49		
E	사서/도서관장+교수, 문헌정보학 제외			10	38.46
	합계	183	100.00	2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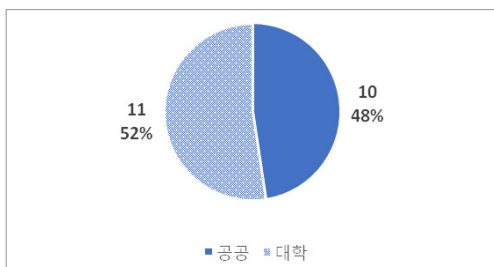
지 출판 저자 분포와는 다소 차이가 났다. 사서/도서관장과 교수의 공동 연구(E)는 10편이어서 전체의 38.46%에 해당하였다. 이에 비해 문헌정보학 학술지를 출판에서 교수의 공동 연구(D)는 전체의 70.49%로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서/도서관장의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은 대체로 단독 또는 교수와의 공저였고, 반면에 사서가 연구원과 공저한 경우(B, C)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논문 전체 26편 가운데 5편은 동일 저자가 복수 출판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사서/도서관장 저자수는 모두 21명이었다. <그림 5>는 이들 사서/도서관장이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 유형을 보여준다. 공공도서관에 재직하는 사서/도서관장은 11명으로 전체의 52%, 대학도서관에 재직하는 사서/도서관장이 10명으로 전체의 48%였고, 학교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 소속은 없었다.

전체 논문 26편의 제목과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도서관, 도서, 출판과 관련된 논문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도서관 9편, 도서 3편, 출판 3편 등 15편으로 전체의 57.69%가 타학문분야 학술지에 출판되었지만 도서관과 관련 있는 논문임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공공도

서관에서의 어린이 문학 이용 활성화 방안”은 아동문학 학술지인 『동화와 번역』(17: 215-243)에 출판되었지만 도서관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학습조직화 수준이 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도 교육학 학술지인 『역량개발학습연구』(6(3): 1-22)에 실렸지만 도서관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 더불어 의약학 학술지인 『대한한의학회지』(38(3): 103-110)에 게재된 “한의학 학술지에서의 이중게재 현황”도 학술지 출판 및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것이어서 도서관과 관련이 깊다.

정리하면 도서관의 사서/도서관장이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은 183편인데 비해, 타학문분야 연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분야 학술지에 출판한 경우는 26편에 불과해 매우 적었다. 후자의 경우에도 약 58%는 도서관, 도서, 출판 등에 관한 것이어서 문헌정보학 영역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서/도서관장과 타학문분야 연구팀의 긴밀한 협력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표 6>에서 b는 비뇨기과 의료진 6명과 사서 1명이 공저한 비뇨기과 논문이고, c는 대학 연구팀 2명과 사서 1명이 공저한 건축학 논문이다. d는 대학 연구팀 8명과 사서 1명이 공저한 재료공학 논문이다. 세 논문 모두 사서가 공저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림 5>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 사서/도서관장의 소속 분포

### 3.3 사서의 타학문분야 연구 참여

현재 해외에서는 사서와 타학문분야 연구자와의 공저 및 학술지 출판이 활발하고, 이는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타학문분야 연구프로젝트 파견사서의 역할

〈표 6〉 사서/도서관장의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 주요 사례

<p><b>a</b></p> <p><b>Cochrane Library</b> 사용지침서 The Cochrane Library User Guide</p> <hr/> <p><b>임상이비인후과</b> 약어 : J Clinical Otolaryngol <b>2010, vol.21, no.2, pp. 293-299 (7 pages)</b> DOI : 10.35420/jcohn.2010.21.2.293 UCI : G704-SER000010450.2010.21.2.010 발행기관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부산,울산,경남 지부회 연구분야 : 의약학 &gt; 이비인후과학</p> <hr/> <p>황은주 <sup>1</sup></p> <p><sup>1</sup> 부산대학교 의생명과학도서관</p>	<p><b>b</b></p> <p><b>Treatment of Leukocytospermia in Male Infertility: A Systematic Review</b></p> <hr/> <p>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약어 : World J Mens Health <b>2016, vol.34, no.3, pp. 165-172 (8 pages)</b> UCI : G704-001520.2016.34.3.002 발행기관 : 대한성상과학회 연구분야 : 의약학 &gt; 미노기과학</p> <hr/> <p>장재홍 (Jaehung Jung (제1)<sup>1</sup>), 김중희 (Jung Kim (중)<sup>2</sup>), 김지예 (Jim Jye (중)<sup>3</sup>), 박순구 (Sung Park (중)<sup>4</sup>), 고성백 (Sangbaek Koh (중)<sup>5</sup>), 박원준 (Woonjun Park (중)<sup>6</sup>), 서우태 (Utae Seo (교신)<sup>7</sup>)</p> <p><sup>1</sup> 연세대학교 <sup>2</sup> 연세대학교 원주의학도서관 <sup>3</sup> 연세대학교 <sup>4</sup> 연세대학교 <sup>5</sup> 연세대학교 <sup>6</sup> 부산대학교 <sup>7</sup> 단국대학교</p>
<p><b>c</b></p> <p><b>조명환경의 차이에 따른 그룹지적활동의 생산성과 만족도 평가</b> Evaluation of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on Group Intellectual Activity in Different Lighting Environment</p> <hr/> <p>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b>2017, vol., no.58, 통권 58호 pp. 136-144 (9 pages)</b> 발행기관 :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연구분야 : 예술체육학 &gt; 기타예술체육</p> <hr/> <p>이규환 /Kyoohwang LEE (제1)<sup>1</sup>, 우테리코 /Uda, Norihiko (중)<sup>2</sup>, 츠루미 /Tsumumi, Hiroshi (중)<sup>3</sup></p> <p><sup>1</sup> 포서대학교 <sup>2</sup> 일본국립조쿠바대학 도서관정보미디어계 <sup>3</sup> 일본나고야대학 서양·환경계획부전실</p>	<p><b>d</b></p> <p><b>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Al-Al2O3 metal ceramics via powder metallurgy methods</b></p> <hr/> <p>Journal of Ceramic Processing Research <b>2018, vol.19, no.1, pp. 50-53 (4 pages)</b>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세라믹공정연구소 연구분야 : 공학 &gt; 재료공학</p> <hr/> <p>Jieqiang Song (제1)<sup>1</sup>, Xiaojin Wang (중)<sup>2</sup>, Lin Chen (중)<sup>3</sup>, Caifang Pang (중)<sup>4</sup>, Jia Zhang (중)<sup>5</sup>, Weiguo Shi (중)<sup>6</sup>, Songlin Guo (중)<sup>7</sup>, Xianzhong Wang (중)<sup>8</sup>, Ruihua Wang (중)<sup>9</sup></p> <p><sup>1</sup> Pingxiang University <sup>2</sup> Library of Pingxiang University <sup>3</sup> Pingxiang University <sup>4</sup> Pingxiang University <sup>5</sup> Pingxiang University <sup>6</sup> Pingxiang University <sup>7</sup> Pingxiang University <sup>8</sup> Pingxiang University <sup>9</sup> Jujiang University</p>

을 역설하고, 더불어 도서관계의 대응방안을 기술한 선행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의 선행연구 가운데 국내 도서관에서도 눈여겨 볼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전통적 도서관 업무는 그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여 사서 스스로 익숙하게 느끼는 반면, 파견사서의 업무는 이와 다른 면이 있다(Carlson and Kneale 2011). 예를 들어 연구비 수주와 같이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도 함께 매달려야 하는 등 그동안 도서관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팀원과 일체가 되어 인내하다 보면, 문제를 극복하고 성과를 산출하여, 교수진 또는 동료 연구자와 신뢰도 쌓이고 관계도 돈독해지는 등 이전과는 다른 보람과 보상도 따를 수 있다. 나아가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사

업가처럼 자신이 하는 일을 널리 알리고, 자신의 역량을 상품을 홍보하듯 적극 소개한다면 사서에 관한 학내외 인식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Carlson and Kneale 2011). 도서관을 선정하고, 학술지를 관리하는 것 등과 같은 가시적인 업무 외에 사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도 많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파견사서는 프로젝트형 또는 프로그램형 가운데 하나를 띄게 된다(Carlson and Kneale 2011). 예를 들어 미국 피듀대가 택하고 있는 프로젝트형은 프로젝트 기간 동안 사서가 정보 탐색, 데이터 정리, 정보/데이터의 장기 보존 등의 업무에 깊숙이 개입하고, 프로젝트 기간이 끝나면 사서의 업무도 동시에 종료되는 형태이다. 반면에 프로그램형은 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 대학원생에게 수행하는 자료 및 검색 교육에 집중하는 형태로 전통적 도서관에도 있었던 교육기능이 시대에 맞게 변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프로젝트에 파견사서가 투입되어 체계적인 자료탐색, 저작권, 연구성과 배포, 보존 등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러한 활동 예가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상세히 보고되는 일은 드문 편이다. 오히려 의학, 자연과학, 공학 등 타학문분야에서는 파견사서와의 협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와 같은 성과를 주변 동료와 공유하기 위하여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일도 많다. 최근에는 경영학이나 사회과학 분야 연구프로젝트에서도 파견사서와 협업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Foutch 2016).

Foutch(2016)는 인사조직개발 연구프로젝트에 파견사서로 발탁되어, 매주 정기미팅과 주당 10시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종 연구보고서에 자신이 공동연구자로 기재된 경험 사례를 보고한 바 있다. 연구프로젝트 파견을 통해 그는 연구의 전개와 진행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사서가 협업할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프로젝트 방향이 바뀌거나 좀 더 많은 소스를 필요로 할 때, 동료 연구자를 독려해 함께 데이터/자료를 확대 수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팀원의 역량을 한 데 모으는 일종의 통합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 3.4 논의

2009년부터 10년간 출판된 국내 학술지 가운데 사서를 포함한 도서관 소속 저자 논문 319편

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나아가 사서/도서관장의 타학술지 출판에 관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도서관 소속 저자는 연간 약 32편의 논문을 출판하고 있고, 이 가운데 43%는 문헌정보학이 아닌 타학문분야 학술지 논문이었다. 타학문분야 학술지 저자는 사서가 아닌 법률자료조사관(전문경력관) 27%, 학예연구사(사료관/고서전문원) 24% 등 법학, 역사 전공의 전문가가 많았다. 국회도서관에 재직하는 법률자료조사관은 국내 또는 해외의 법률자료를 전문적으로 검색해 제공함으로써 입법을 돕는 역할을 하며, 법학 박사학위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재직하는 학예연구사는 고문헌의 보존과 처리를 담당하며, 문화재보존 또는 관련 이공학을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법률자료조사관과 학예연구사는 각각 법률조사, 고서보존과 같은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조사, 분석, 연구를 진행하며,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출판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이 모두 도서관 소속인 만큼 해당 도서관의 사서는 이들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연구 파트너가 되어 연구와 출판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 국내 사서가 타학문분야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출판하는 경우는 해외와 달리 많지 않았다. 사서/도서관장의 논문은 주저자 12편, 공저자 14편으로 모두 26편이었고, 타학문분야 학술지 전체 논문의 약 19% 비중이었다. 사서/도서관장이 출판한 학술지는 사회과학 31%, 인문학 23%, 의학 15%, 과학 15% 등이었고,

타학문분야에 출판했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도서관, 도서, 출판 등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의학 학술지에 게재된 3편의 논문 중 2편(〈표 6〉 b 참조)은 보건, 비뇨기과 선행연구 리뷰를 사서/도서관장이 수행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나머지 1편(〈표 6〉 a 참조)도 실제 질병 치료 증례를 수록한 의학 사이트를 설명한 것이어서 사서의 주도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들 3편의 논문 모두 사서/도서관장이 의학 분야에 깊숙이 개입하여 작성한 논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서/도서관장 논문의 50%는 타학문분야 교수나 연구자와의 협업이 아닌 사서/도서관장 자체내 연구였고, 교수와의 공저는 40%였다. 이로써 사서/도서관장은 타학문분야 교수나 연구자와의 협업이 아닌 독립적인 학술지 출판이거나, 공저인 경우 교수와 주로 협업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셋째, 타학문분야 또는 다학제적 연구프로젝트에 사서를 섭외하는 것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연구프로젝트에 사서를 파견하는 사례는 이미 해외 선행연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사서가 출판하는 논문 중 문헌정보학 학술지는 감소하는데 비해 타학문분야 학술지 출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사서가 문헌정보학과 타학문분야 학술지에 거의 같은 비중으로 논문을 출판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Blecic et al. 2017; Borrego, Ardanuy and Urbano 2018).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를 통섭하는 융합 연구를 진행하거나, 각각 다른 분야 연구자가 한 팀이 되어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복합 연구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수집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사서를 연구프로젝트 팀

의 일원으로 파견하는 일에 도서관과 학계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연구프로젝트에서 사서가 데이터 또는 자료담당으로 제 역할을 하고, 연구공동체의 일원으로 확실하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학계, 도서관계 모두 중장기적 준비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Carlson and Kneale 2011). 예를 들어 연구프로젝트 파견사서는 문헌정보학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연구 프로세스, 연구 방법 등에 관한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서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에서 미리 습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므로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편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파견사서 근무가 계기가 되어 사서가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일도 종종 있다는 보고이다(Carlson and Kneale 2011). 사서의 학력이 올라갈수록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서 스스로 익숙하지 않은 타학문분야라는 데 대한 부담을 덜고, 이를 인정하고 보완하려 노력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연구진을 돕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연구프로젝트에 사서 파견을 요청하는 일은 더욱 더 많아질 것이고 협업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는 연구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4. 결 론

개인, 기관, 국가간 연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연구프로젝트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팀원의 다변화, 즉 사서를 연구팀원으로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해외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또한 오픈 데이터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수집, 관리, 보존, 제공 담당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서를 연구팀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연구프로젝트 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당연하다는 견해도 있다(Bedi and Walde 2017). 또한 첨단 IT의 영향으로 도서관 및 사서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도서관 대부분이 경험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도서관도 전통적인 업무 방식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업무의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는 순발력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타학문분야 연구에 사서가 직접 참여하고, 타학문분야 학술지에 사서가 공저로 출판하는 것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서가 타학문분야 학술지에 자주 출판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조차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10년간 출판된 국내 학술지 논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사서가 국내 타학문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내 사서는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주로 출판하는 경향이 있고, 타학문분야 학술지에 출판하더라도 도서관, 도서, 출판에 관한 내용에 머무를 때가 많으며, 이들이 해당 학문분야와 직접 연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건

축학, 재료공학 등 일부 분야에서 해당 분야의 여러 교수/연구자와 도서관 사서가 협력하여 학술지 논문을 출판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소특이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연구비 지원이 활발한 다른 학문분야 연구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사서가 파견되고 협업한다면, 해당 학계, 도서관, 사서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전문직 사서에 대한 인식과 이해 증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국내 사서의 타학문분야 연구 참여를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연구프로젝트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하여 분석하는 대신 국내 학술지 논문 데이터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것이다. 국내 학술지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Web of Science, Scopus 등의 국제인용색인에서 국내 연구자의 해외 논문을 찾은 후, 사서가 참여한 논문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이다. 아울러 NTIS에서 국가 연구프로젝트의 연구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을 찾아 연구자 및 소속 기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연구프로젝트 파견사서의 참여 활동을 보다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연구가 이어지고 여기서 나온 주요 결과를 도서관 정책에 반영하여 실천한다면, 도서관은 물론 여러 다양한 학문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 [1] 서은경 외. 2015. 계량정보학적 분석을 통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최근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3): 315-343.
- [2] 정재영, 박진희. 2011.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장연구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2): 171-191.
-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9.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online] [cited 2019. 7. 1.]  
<<https://www.ntis.go.kr/ThMain.do>>
- [4] 한국연구재단. 2019a.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orea Citation Index, KCI). [online] [cited 2019. 7. 1.]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 [5] 한국연구재단. 2019b. 학술연구분야분류표. [online] [cited 2019. 7. 1.]  
<[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 [6] Bedi, S. and Walde, C. 2017. "Transforming Roles: Canadian Academic Librarians Embedded in Faculty Research Project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8(3): 314-327.  
<https://doi.org/10.5860/crl.78.3.314>.
- [7] Best, R. D. and Kneip, J. 2010. "Library School Programs and the Successful Training of Academic Librarians to Meet Promotion and Tenure Requirements in the Academ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1(2): 97-114.
- [8] Bleicic, D. et al. 2017. "Publication Patterns of U.S. Academic Librarians and Libraries from 2003 to 2012."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8(4): 442-458.  
<https://doi.org/10.5860/crl.78.4.442>.
- [9] Borrego, Á., Ardanuy, J. and Urbano, C. 2018. "Librarians as Research Partners: Their Contribution to the Scholarly Endeavour Beyo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4(5): 663-670.
- [10] Brandenburg, M. D. et al. 2017.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Librarian Involvement in Grant Project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8(3): 272-282.  
<https://doi.org/10.5860/crl.78.3.272>.
- [11] Carlson, J. and Kneale, R. 2011. "Embedded Librarianship in the Research Context: Navigating New Water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News*, 72(3): 167-170.  
<https://crln.acrl.org/index.php/crlnews/article/view/8530>.
- [12] Finlay, S. C. et al. 2013. "Publish or Practice? An Examination of Librarians' Contributions



- to Research.”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13(4): 403-421.
- [13] Foutch, L. J. 2016. “A New Partner in the Process: The Role of a Librarian on a Faculty Research Team.” *Collaborative Librarianship*, 8(2): 80-83.  
<http://digitalcommons.du.edu/collaborativelibrarianship/vol8/iss2/6/>
- [14] Kenefick, C. and Werner, S. E. 2011. “Bibliometric Study of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1982-2009.” *Medical Reference Services Quarterly*, 30(1): 1-11.
- [15] Norelli, B. and Harper, T. L. 2013. “Collaborative Scholarship in Academic Library Literature: Who, What, and When.” *College & Undergraduate Libraries*, 20(2): 173-196.
- [16] Soutter, J. L. 2007. “Academic Librarian Competency: A Description of Trends in the Peer-Reviewed Journal Literature of 2001-2005.” *Partnership: The Canad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actice and Research*, 2(1): 1-22.
- [17] Wood, S. E. and Park, B. 2013. “The Journal-Based Publishing Activity of Tennessee Academic Librarians: 2007-2011.” *The Southeastern Librarian*, 61(1): 3-1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Seo, E. G. et al. 2015. “Informetric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3): 315-343.
- [2] Chung, J. Y. and Park, J. H. 2011. “Analysis of the Trends in the Field Studi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2): 171-191.
- [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2019.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online] [cited 2019. 7. 1.] <<https://www.ntis.go.kr/ThMain.do>>
- [4]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9a. Korea Citation Index. [online] [cited 2019. 7. 1.]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 [5]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19b. Classification Table of Academic Research Field. [online] [cited 2019. 7. 1.] <[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